

북한 해외식당 12명 여성종업원과 변호인 접견 중재 요청

1. 먼저, 대한적십자사가 제21차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총회 관리이사회 선거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대표 위원사로 선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 한반도,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의 인도주의 문제를 공동으로 협력해 해결해 나가는 길에서 더욱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TF(이하 ‘민변 TF’ 라고 합니다)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와 공동으로 지난 10월 13일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신임회장과 첫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면담에서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적십자정신에 따라 여성종업원들의 신변확인을 비롯한 북측 가족들과 여성종업원들의 상봉, 변호인 접견권 보장, 여성종업원들의 인신의 자유 회복 등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북한 해외식당 12명의 여성종업원들을 직접 면담하는 등 적십자정신에 입각하여 해결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 한편, 민변 TF는 지난 11월 7일 국제적십자사 연맹 제21차 총회 앞으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을 촉구하는 긴급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국적, 인종, 종교적 신념, 정치적 입장의 차이와 관계없이 오직 개개인의 절박한 필요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적십자사 정신이, 600일 가까이 가족들과 서로 안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을 위해 발휘되길 바라며 긴급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긴급청원에서 제21차 국제적십자사 연맹 총회에서 세계가 보는 앞에서 남북 적십자사 대표들이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이들 종업원들의 문제해결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각국 적십자사, 적신월사 대표들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4. 지난해 봄 입국 사실이 알려지고 두 번째 겨울을 맞이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정원, 통일부, 경찰청을 통해서가 아니면 이들 종업원들에 관련된 어떤 것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종업원들의 문제는 12명의 개인, 그리고 그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관리와 통제 속에 인권과 천륜이 갇힌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대한적십자사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합니다.

5. 이에 우선적으로 신속히 북한 해외식당 12명 여종업원들과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의 변호인 접견을 중재하여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들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이후, 이들 종업원들의 북측 가족들로부터 간신히 대한민국 내 모든 소송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은 이들 종업원들을 접견하고자 여러 차례 신청했지만 국가정보원은 단 한 차례도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의사와 신변을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요청에, 그저 이들 종업원들 스스로가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는 대답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정작 그들의 뜻을, 신변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말입니다.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은 대한민국의 법이 마련하고 있는 모든 절차를 통해

이들과의 접견을 시도하고, 가족들의 안부를 전하러 하고,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이미 자유롭게 잘 살고 있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했고, 대한민국 법원 또한 이런 국가정보원의 설명만 믿고 종업원들의 현재 상황과 그들의 진정한 의사를 법정에서 직접 확인하자는 변호인들의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는 국가정보원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그 누구도 종업원들의 신변을 알 방법이 없고, 북측 가족들은 딸들의 생사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태로 1년 반의 시간을 보내야했습니다.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다는 종업원들의 안부는, 지금까지도 오직 국정원의 말뿐이고 법원을 비롯한 그 누구도 종업원의 신변안위를 제대로 확인한 적이 없고 그러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측 가족들은 이 사건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의 유인납치행위로 규정하고 딸들을 돌려달라고 수차례 국제사회에 요구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한 종업원의 아버지는 딸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사망하였습니다.

민변TF 소속 변호사들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들 종업원들의 생사와 주소를 확인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현실 자체가 인도주의의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대한적십자사에서 적십자정신에 따라 이들 12명 종업원들과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의 변호인 접견을 중재하여 주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2017. 11.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옥 [직인생략]